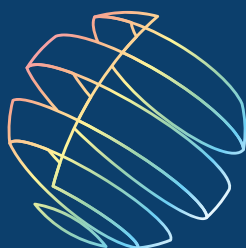


2020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성과사례집

Knowledge
Sharing
Program



2020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성과사례집

Knowledge
Sharing
Program



QR코드를 스캔하면
더 많은 KSP 성과사례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0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KDI CID)

주소 (우)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반곡동, 한국개발연구원)

기획·편집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기획평가실 김승주, 이규찬, 이숙영

한국개발연구원 www.kdi.re.kr | KSP 사업 www.ksp.go.kr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2020년 성과사례집은 KSP 사업의 성과체계화와 국내외 인식도 제고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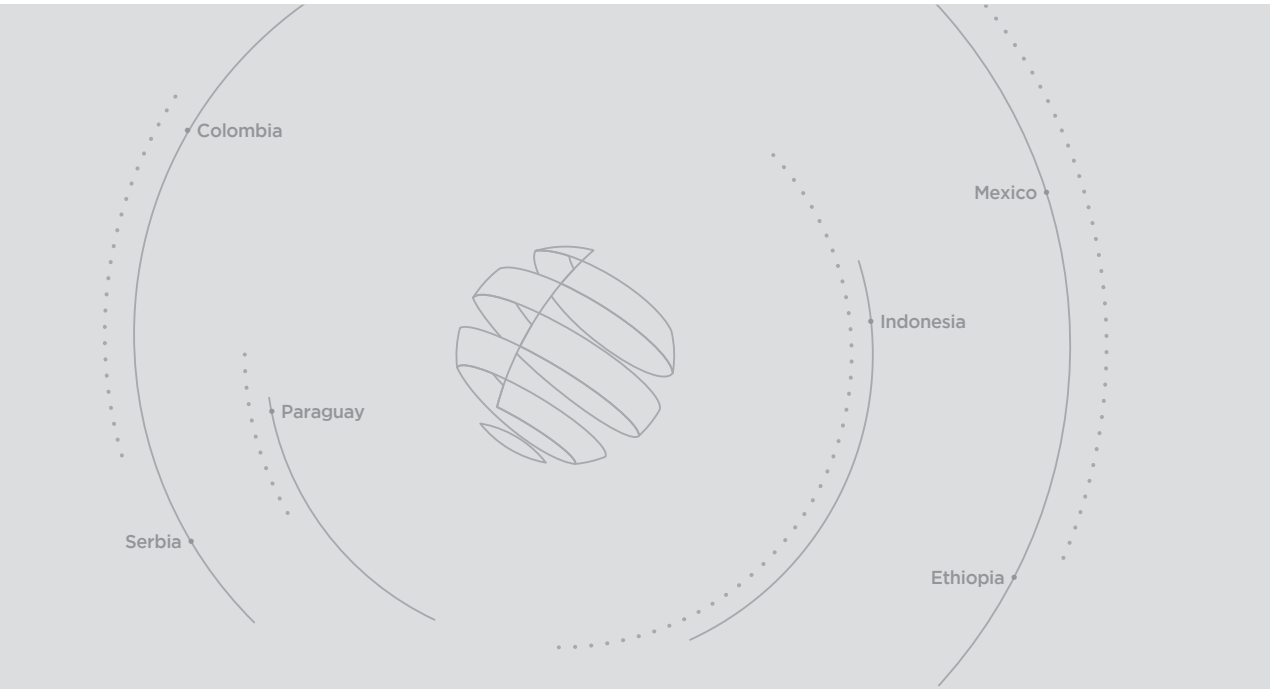


KSP는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맞춤형 정책제언을 제공하기 위해 2004년 출범한 지식기반 개발협력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협력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양국간 경제협력 기회를 모색하여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은 2004년에 시작되어 햇수로 벌써 16년째가 되어간다. 해를 거듭하면서 KSP 사업의 수행실적도 많아지고 협력관계도 확대되어 2004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84개국 1,300여 개 주제에 대한 정책자문이 실시되었다. 사업이 해를 거듭하면서 KSP 사업의 성과도 축적되고 발전되어 갔다. 이에 따라 KDI는 2014년 성과추적체계를 도입하고 성과추적을 통해 발굴한 성과를 사업의 배경, 발전과정, 시사점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한 성과사례 노트를 제작하고 있다. 2020년 성과사례집은 지금까지 제작된 성과사례 노트를 기반으로 성과발현이 뚜렷이 확인된 몇몇 사례들을 선별하여 소개하고자 기획되었다.

본 성과사례집은 앞서 언급한 성과에 대한 논리적, 체계적 접근 외에 KSP 사업과 성과에 대한 인식도 제고 측면에서 만들어졌다. 2019년 12월 「2019년도 공적개발원조(ODA)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대외원조 제공 지지도는 81.3%로 2011년 조사 시작 이후 약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고, 응답자의 약 79.2%가 현 ODA 예산을 현상유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밝혀 KSP를 포함한 전체 ODA 사업의 국내외적 기여도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 확보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① 2019년 9월 현재 전국의 가구 내에 거주하는 만 19세~79세의 일반국민 1,000명 대상으로 행정연구원이 실시



본 성과사례집은 이처럼 KSP 사업의 성과체계화와 국내외 인식도 제고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사례집은 기존 사업을 소개하는 것에서 나아가 국제기구(해외연구소)들이 KSP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KSP 사업에 대한 객관적 고찰과 향후 KSP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국별 사례는 카자흐스탄, 미얀마, 벨라루스 3곳의 국가를 선정하되 2014년도에 도입된 성과분류체계에 따라 협력국 정책반영사업, 민간연계사업으로 나누어 성과분류 유형별 균형을 유지하고 신북방 및 신남방 국가를 선정하여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성과사례집이 KSP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향후 KSP 사업진행에 많은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향후 협력하게 될 모든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관계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사례집에서 소개하고 있는 성과들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국내외 연구진, 한국 및 협력국 정부관계자, 사업책임자 및 관리자, 넓게는 한국 민간 기업들의 노력이 아니었으면 이 사례집을 통해서 소개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고자 한다.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KDI CID

주요 약어 목록(List of Acronyms)

- 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KDI: Korea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개발연구원
- CID: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국제개발협력센터
- ODI: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해외개발연구소
- WB: World Bank
세계은행
- UNESCAP: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아시아 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



② 성과사례집 본문 중 국제기구에서 보는 KSP는 ODI, Korea Innovation Week, UNESCAP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KSP 성과분류체계 소개

KSP 사업의 성과는 KSP 사업 운영지침^①에 의거해 크게 (1) 개인과 조직 형태의 새로운 의사결정 및 정책·제도변화, (2) 국내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개발협력, (3) 민간 부문과의 경제협력 촉진 등의 3가지로 구분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세부 KSP 성과분류체계는 아래 표와 같다.

| 대분류 | 중분류 |
|-----------------|----------------------------------|
| 협력국 자체 정책 반영 | 법률, 규정 수립 |
| | 정책문서, 예산 수립 |
| | 기관, 조직 설립(개편) |
| | 기타(정책관계자 홍보, 정책 네트워킹 강화, 역량강화 등) |
| 개발협력 촉진 | 상호협약(MOU, LOI 등) |
| | 전문가 파견 |
| | 후속 교육/연수 |
| | 후속 부처(기관) 사업 협의 |
| | 기술지원(KSP, KOICA, WFK 등) |
| | 금융지원(EDCF, 증여, 인프라 PPP 등) |
| | 기타 ODA 사업(정부부처, 지자체, 기타 공공기관 사업) |
| | 국제기구 등 후속협력 연계 |
| | 기술지원(국제기구) |
| | 금융지원(차관, 증여, 인프라 PPP 등) |
| 민간 경제협력 촉진 | 민간기업 연계(영업기회 탐색, 타당성 조사 등) |
| | CSR |
| | 현지 기업지원 |
| | 직접투자 |

KSP는 위의 성과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획단계에서 설정했던 잠정 성과 발현 여부를 협력국, 국제기구 및 국내 관계자와의 면담, 서면인터뷰, 문헌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후속사업 연계지원을 통해 KSP 사업의 성과 발현에 기여하고 있다.

① KSP 사업 운영지침(19.10.2 개정) 제2장 3절 31조 성과관리 및 확산 중 사업성과창출에 따른 성과분류

1. 정책자문 결과가 협력대상국 법령 또는 정책에 반영
2. 정책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대상국 공공기관 설립, 조직개편 등을 실시
3. 정책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대상국 인프라 개발 및 건설, 시스템 구축, 우리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개발협력사업 등 후속사업을 추진
4. 사업을 계기로 우리 기업이 협력대상국에 진출하거나 각종 후속사업을 수주
5. 그 외 양국 정부 및 민간 간 교류협력 증진

CONTENTS

국제기구에서 보는 KSP

ODI 10p

개발원조에서 지식공유로의 전환

World Bank 12p

Korea Innovation Week에서 소개된 KSP 사업

UNESCAP 14p

원조효과성 제고와 SDGs 달성을 위한 한국의 지식공유사업 KSP

KSP 국가별 성과사례 소개

카자흐스탄 18p

카자흐스탄 정부의 한국 주택보증제도 도입

미얀마 22p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설립

벨라루스 26p

벨라루스 국가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

협력국의 지금, 한눈에 보기 30p

Knowledge
Sharing
Program

01 PART

국제기구에서 보는 KSP



01

[ODI]

개발원조에서
지식공유로의 전환



02

[World Bank]
Korea Innovation
Week에서 소개된
KSP 사업



03

[UNESCAP]
원조효과성 제고와
SDGs 달성을 위한
한국의 지식공유사업 KSP



개발원조에서 지식공유로의 전환

공여국이 된 한국 그 이후, 영국 ODI 보고서^①에 소개된 KSP



국제사회에서는 특정 국가가 3년 연속으로 1인당 소득기준 12,000달러 이상을 달성하면 공적개발원조(ODA) 대상국에서 제외하고 있다. 최근 여러 국가들의 소득수준이 개선됨에 따라 2030년까지 29개의 수원국이 '원조 졸업(ODA graduation)'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OECD, 2014). 하지만 원조를 졸업한 국가가 그동안 받아오던 원조가 사라졌을 때 이에 대한 충격에 어떻게 대처하고 그간 수원국과 공여국의 관점에서 구축된 네트워크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1960년 설립된 영국을 대표하는 국제개발·인도지원 싱크탱크인 해외개발연구소(이하 'ODI')는 2019년 Moving

away from aid-Lessons from country studies 연구를 통해 수원국 리스트에서 제외된 칠레, 아직 수원국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공여국으로의 전환 과정에 있는 멕시코와 보츠와나 등 4개국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이 중 한국에 대한 사례연구 보고서 「Moving away from aid: the experience of the Republic of Korea」는 과거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2000년 수원국을 공식 졸업하기까지 한국의 발전경험과 현재 공여국으로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자리매김(Positioning)하고 있는지를 소개한다.

ODI 보고서에 비친 'KSP' 사업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이하 'KSP')은 원조에서 벗어난 이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는지 등 현 국제개발 협력분야에서의 한국의 개발협력전략과 관련있다. ODI는 한국이 개발도상국과의 지식공유 허브(Hub for knowledge-sharing)로 탈바꿈함으로써 기존의 유·무상원조, 상업성 차관과 같이 자금지원이 아닌 지식공유사업으로의 새로운 개발협

력 양상을 보여 주었다고 언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기획재정부 KSP 사업을 통해 한국의 발전 경험과 국제사회의 우수한 정책제언을 공유함으로써 개도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부딪히는 여러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① 본 ODI 연구물의 저자인 Rachael Calleja와 Annalisa Prizzon은 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2019.6.25일 KDI를 한 차례 방문한 바 있다. 이후 9.26일 KDI는 2018/19년 KSP 글로벌 지식공유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해외개발연구소(ODI)를 방문하여 ODI가 진행 중인 '한국의 수원국-공여국 전환 사례연구'에 한국의 발전경험과 KSP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이 문답 내용이 상당부분 본 연구물에 반영되었다.

② International Development Exchange Program(IDEP) 사업은 KDI에 의해 1982년에 시작되었다. IDEP 사업의 주요 목적은 한국과 그 외 선진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여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에 있으며 이를 통한 지식공유와 국가 간 경제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ODI 보고서 속 한국의 지식공유사업(KSP) 소개

한국의 지식공유사업은 1982년 IDEP 사업^②을 기반으로 2004년 시작되었다.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ODI는 KSP의 3가지 분야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1] 정책컨설팅

특정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는 정책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2004년에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2개 국가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미 84개국으로 파트너 국가가 확장되었다.

[2] 한국의 개발경험 사례연구 (KSP 모듈화사업)

정책컨설팅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한국은 개발경험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모듈화하여 KSP 파트너 국가에게 한국의 발전 경험을 전수하고 있다.

[3] 공동컨설팅

지식공유사업은 한국의 개발경험 전수뿐만 아니라 AfDB, ADB, OECD, World Bank 등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파트너 국가에게 더 적합한 정책제언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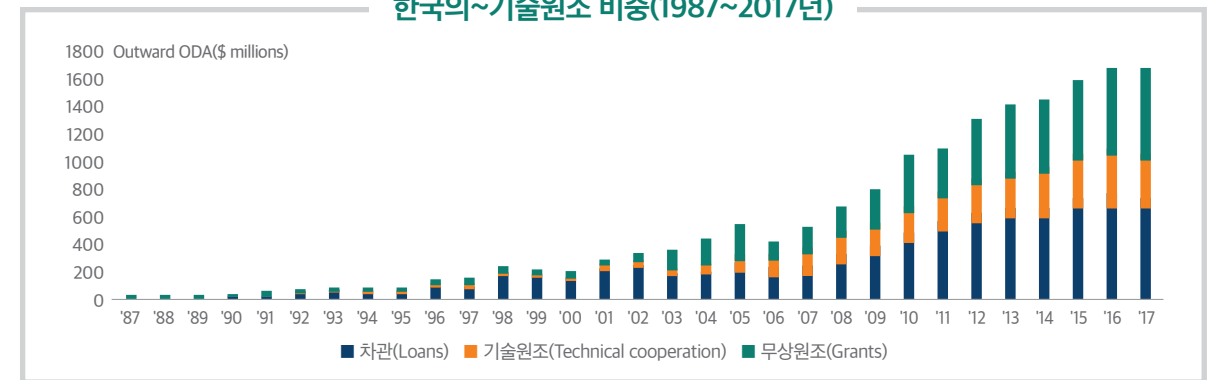
*출처: ODI 보고서 「Moving away from aid: the experience of the ROK」, p.35 일부 발췌

국제사회 지식공유 개발협력의 선두주자 'KSP'

ODI 연구보고서에는 한국의 ODA 원조자금이 2000년 212백만 달러에서 2005년 752백만 달러로 약 3배가량 증가한 것을 언급하였다. 특히, 한국의 무상원조 중 기술원조의 비중이 2003년과 2008년 사이에 63%를 차지하고 있음을 괄목할만한 성과로 언급하였다. KSP는 한국 ODA 유형 중 기술원조(Technical

cooperation)로 분류되며 아래 그래프는 2004년 KSP가 시작된 이래 한국의 전체 ODA 원조 지원 중 한국의 기술원조 비중이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ODI는 한국이 KSP 사업을 통해 한국의 산업화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견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기술원조 비중(1987~2017년)



*출처: OECD DAC(ODI 보고서 p.34에서 재인용)

미래 국제협력에서 지식공유의 중요성

최근 ODI에서 게재한 기사 '코로나19와 국제협력의 미래 (COVID-19 and the futur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에서는 비대면 시대가 장기화될 것이 현실화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간 지식공유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코로나19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향후 10년간 더욱 많은 국가들이 ODA 수원국의 지위를 졸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금 지원을 넘어 국가 간 지식공유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 Korea Innovation Week에서 소개된 KSP 사업



Q&A ①

본 행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세계은행(World Bank, WB)은 현 글로벌 경제 위기 타개 및 새로운 경제 가치 창출을 위해서 기술혁신이 중요하며 이러한 기술변화가 향후 글로벌 경제와 우리가 일하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등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제기한다고 하였다. 세계은행은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고 혁신적인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과 같은 글로벌 파트너와 협업하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저기술,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시작하여 첨단기술, 기술집약적 경제로 성장하였으며 기술 분야 글로벌 지표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① 특히, 한국은 기술에 있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와 민간기업과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에 혁신 기술에 기반을 둔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이버보안, 스마트시티, 디지털 정부, 빅데이터 수집 등과 같은 분야에서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와 협력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

Q&A ②

언제, 어디서 열렸으며 어떤 기관이 참여했는가?

세계은행과 한국 정부는 60년이 넘는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기술혁신 부문 개발협력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혁신주간(Korea Innovation Week)' 행사를 2020년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워싱턴 D.C.에 위치한 세계은행 본사에서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한국의 혁신 및 기술 분야 대표 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하여 한국의 9개 정부기관, 49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였다. 한국 정부는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IDA) 자금 지원과 신탁기금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신탁기금 2억 4천 7백만 달러 포함, 2015~2019년 간 11억 달러를 지원) 지식공유, 역량강화연수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세계은행과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 본 행사에서는 한-세계은행 파트너십기금(Korea-World Bank Partnership Facility, KWPF),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Korea Green Growth Trust Fund, KGGTF), 한국지식공유신탁기금(Korea Program for Operational Knowledge, KPOK) 등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하며 한국의 디지털 혁신 경험 공유와 향후 세계은행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① 글로벌 혁신 지수(2019년 11위), ICT 개발 지표(2017년도 2위), e-정부개발 지표(2018년도 3위, 기준에 다년간 1위 차지). Bloomberg Innovation Index에서는 2019년에 가장 혁신적인 국가 1위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받고 싶은(sought-after)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함.

KSP 사업은 지식기반 개발협력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에 포괄적 정책 제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자개발은행(MDB)과 협업하고 있다.

출처: KoreaWeek Brochure에 나온 'KSP 사업' 소개 발췌

Q&A ③

본 행사에서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KSP 사업은 한국의 개발컨설팅 유형 개발협력사업 중 유일하게 본 행사에서 소개되었다. KDI 국제개발협력센터(CID) 안상훈 소장은 본 행사의 패널토의 토론자로 참여하여 한국의 경제성장에 있어 기술혁신이 핵심적인 요인이었음을 언급하고 한국이 얻은 발전경험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혁신 변화의 흐름하에서 한국과 세계은행 간의 파트너십 강화가 더욱 중요해질 것임을 언급하였다.

KDI는 KPOK과 공동으로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Sharing Korea's Development Knowledge)를 주제로 KSP 사업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표적 지식공유 플랫폼으로서 KSP의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하였다. 특히, KSP 홍보 부스에 방문한 세계은행 임직원 및 기타 주요 국제기구 임직원 약 80명을 대상으로 KSP 사업의 절차, 접수방법, 주요성과 등을 소개하였다.

Q&A ④

Korea week는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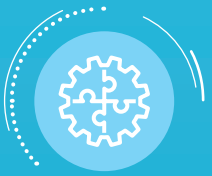
본 행사는 세계은행 본사에서 특정 공여국의 강점분야를 주제로 처음 개최된 행사로서 한국이 국제적으로 기술·혁신 부문 선진 공여국으로 인정받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한국의 대표적 지식공유사업인 KSP의 소개를 통해 한국 발전경험의 실질적인 공유 방안의 모색과 개도국들의 한국 발전경험에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행사 속 숨은 이야기 +

Q. 이번 행사가 처음이 아니라던데?

코리아위크는 2015년 한국과 세계은행 60년의 파트너십을 기념하고자 '60주년 파트너십의 회상과 향후 전망-Retrospect and Prospect'를 주제로 6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동안 서울과 송도에서 열린 바 있으며 이 행사에 세계은행 고위관계자, 세계은행 원조를 받은 국가의 고위관료, 기업·학계 등 국내외 주요인사 200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



원조효과성 제고와 SDGs 달성을 위한 한국의 지식 공유사업 KSP

UNESCO에 소개된 KSP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는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여국들이 국가별로 축적된 개발경험과 차별화된 원조 전략을 기반으로 글로벌 사회에서 개발협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국가별 발전경로는 다르지만 서양의 주요 원조 공여국과 달리 동북아시아 공여국들은 모두 수원국에서 원조국으로서의 전환기(Transition process)를 경험한 바 있으며, 특히 일본,

중국, 한국은 경제·인프라 분야에 원조 자금을 상대적으로 크게 배정한다는 차이도 있다. UNESCAP은 동북아시아의 원조 공여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지식공유, 일본의 삼각협력, 중국의 무역을 위한 원조 등 다양한 형태의 원조 방식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개발협력 방식으로서의 지식공유사업(KSP)

UNESCAP은 'SDGs 달성을 위한 동북아시아 공여국의 개발협력(Achiev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rough Enhanced Development Cooperation in East and North-East Asia) 보고서(2018.1)의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개발협력 방식'에서 한국의 지식공유사업(이하 'KSP')을 소개하였다. UNESCAP은 한국이 경제사회 발전을 통해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득

수준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책 및 제도 개선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식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특히, KSP 사업은 자금이나 실물 지원이 없이 상호학습(Mutual learning)을 전제로 실용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것이 장기적으로 파트너 국가와의 경제사회적 유대강화와 무역·산업분야 협력에까지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UNESCAP 보고서를 통해 본 한국의 지식공유사업(KSP)

한국의 지식공유사업(KSP)은 한국의 개발 경험 특히, 경제성장경험을 바탕으로 파트너국의 제도개선 및 역량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KSP의 주요 목적은 파트너국이 현재 부딪히고 있는 여러 도전들에 대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정책 수립과 이행 능력을 함양하는 데에 있다.

출처: UNESCAP 보고서 p.27 일부 발췌

SDGs 달성과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식공유사업

UNESCAP은 '원조효과성을 위한 지식공유'에서 국가 발전의 핵심요소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식공유사업이 원조피로 현상(Aid fatigue)과 원조효과성 제고에 대한 답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UNESCAP은 KSP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지식공유사업의 최신동향에 대해 언급하며 지식공유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예컨대 세계은행은 개발을 위한 지식 사업을 선도하며 국제사회 지식공유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 간 지식공유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식기반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물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또한 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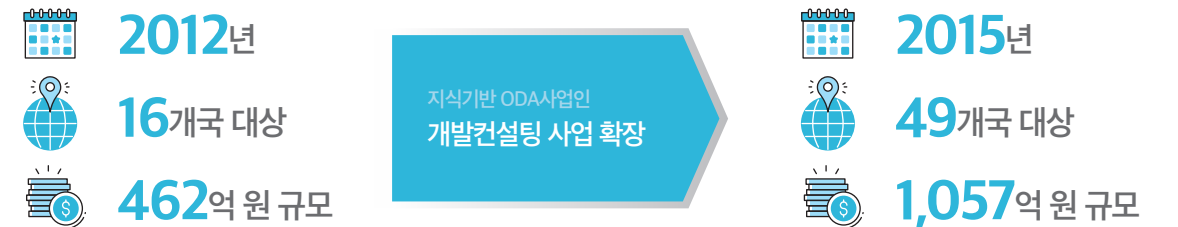
개발은행(ADB)은 효과적인 지식 중개인(Effective knowledge broker)으로서 지식의 수집과 대외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의 양자 공여기관들도 여러 지식공유 사업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UNESCAP은 KSP 사업을 통한 한국의 삼각협력 확대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KSP 사업을 통해 한국이 동남아시아의 신흥공여국과 협력하여 다른 개발도상국에게 정책제언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대해 동료검토(Peer review) 혹은 공동평가(Joint evaluation)를 진행한다면 조금 더 체계적인 자문과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지식기반 ODA 사업의 확장

UNESCAP에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한국의 경제개발경험 지식공유를 통한 지식기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개발컨설팅 사업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2012년 16개국을 대상으로한 462억 원 규모의 개발컨설팅 사업은 2013년 KOICA의 DEEP(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rogram) 사업이 착수되고 개발컨설팅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2015년 49개국 대상 1,057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 제는 기획재정부의 KSP 사업, KOICA의 DEEP뿐 아니라 더 많은 수행기관들이 개발컨설팅 사업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더하기+

Q. UNESCAP은 어떤 기관인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AP)는 UN의 태평양아시아 지역허브(Regional hub)로서 역내 소속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사회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UNESCAP은 정책 자문, 역량강화연수, 기술원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SDGs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출처: UNESCAP 홈페이지

① 2012년 462억 원(전체 ODA의 3%) → 2013년 607억 원(4.3%) → 2014년 399억 원(2.6%) → 2015년 1,057억 원(6.3%) → 2016년 909억 원(4.7%) → 2017년 919억 원(4.3%) → 2018년 995억 원(4.2%) → 2019년 955억 원(3.8%) → 2020년 1,075억 원(3.9%), 출처: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보고서(2012~20년)

02 PART

KSP 국가별 성과사례 소개



01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정부의
한국 주택보증제도
도입



02

[미얀마]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설립



03

[벨라루스]
벨라루스 국가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



카자흐스탄 정부의 한국 주택보증 제도 도입

면적: 272만km² 인구: 1,840만 명
GDP: 1,802억달러 1인당 GDP: 9,731달러
수도: Nur-Sultan



사업 개요

| | |
|-----------|---|
| 국가명 | 카자흐스탄(Republic of Kazakhstan) |
| 사업총괄/수행기관 | 2016 한국개발연구원(KDI) 2019 한국개발연구원(KDI)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 현지협력기관 | 카자흐스탄 주택보증기금(Housing Guarantee Fund) |
| 사업수행년도 | 2016, 2019년(착수년도 기준) |
| 정책자문 주제 | 2016 카자흐스탄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 주택보증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2019 카자흐스탄 주택보증제도 및 운영개선방안 |
| 성과분류 | 협력대상국 자체 정책 반영 |



법률, 규정 수립

2016년 주택건설에 대한
지분참여법 제정,
2017년 주택보증료율에
관한 시행령 No.567 제정



기관 및 조직 설립/개편

2016년 카자흐스탄
주택보증기금(HGF)
설립 지원



민간기업 진출지원

주택보증료율 완화로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



확인성과

- 1 주택지분 참여(Equity participation)는 우리나라의 주택 선분양과 같이 미리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건설이 완료되면 주택을 받는 거래를 의미한다.
- 2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한국 국빈방문(2010.4, 2016.11), 문재인대통령 카자흐스탄 국빈방문(2019.4), 강경화 외교부장관 카자흐스탄 방문(2018.4), 정세균 국회의장 카자흐스탄 방문(2018.3), 출처: KOTRA 해외시장 뉴스
- 3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엘리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연구(이재영, 2010)

카자흐스탄 주거부문 개발전략의 필요성

카자흐스탄은 1991년 구소연방에서 독립한 이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연평균 10%에 육박하는 고도성장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도시인구가 급증하고 주택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사회복지에서 주거부문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임대주택 건설, 주택건설제도, 모기지 제도 구축 등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6년에 지분참여법¹⁾을 제정하여 은행이 수(受)분양자를 보호하는 선분양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 당시 카자흐스탄 내 수많은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해 분양대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한 소비자 약 65,000여 명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는 카자흐스탄 국민의 건설업체 및 주택 지분 참여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많은 건설 프로젝트의 중단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 카자흐스탄

1992년 수교 이후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은 수차례의 정상 외교²⁾를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4월 카자흐스탄에 방문하여 카자흐스탄이 유럽-중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로 "우리의 신북방 정책에 더 없이 좋은 파트너"라며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정부가 노력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한국의

대(對)카자흐스탄 투자는 1991~2000년대 초반까지 저임금을 활용한 제조업과 수출촉진을 위한 도소매업 중심이었으나 2006년 이후 아파트 등 대규모 단지 건설과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로 이어졌다. 2019년 기준 카자흐스탄 건설업 한국 대카자흐스탄 투자 건수는 총 78건이며 실 투자액은 4.4억 달러이다.³⁾

민간기업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KSP

현지 진출한 우리기업 동일하이빌은 2005년 현지 건설 사업을 진행하던 중 카자흐스탄 정부가 매우 비효율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한국의 주택보증제도에 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2013년 5월 카자흐스탄 지역개발부(현 국가경제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 주택보증제도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고 이는 장관 주재 회의에서의 발

표⁴⁾로까지 이어졌다. 2014년 카자흐스탄 지역개발부 장관은 선분양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개발부와 국영지주회사에 한국의 주택분양보증제도 도입과 카자흐스탄 주택보증기금(Housing Guarantee Fund, HGF) 설립 검토⁵⁾를 지시하였다. 이후 2016년 한국방식을 적용한 '주택건설에 대한 지분 참여법(Law on Equity Participation in Housing)'을 제정하였다.

카자흐스탄의 문제 해결책, 한국의 사례

카자흐스탄의 현 선분양제도 개선 및 안정적인 주택공급 등 카자흐스탄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례는 '한국의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건설 시장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를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출처: 카자흐스탄 정부 내부 문서 中 한국제도 활용에 대한 내용

- 1 주요 프로젝트에는 2004년 동일하이빌의 아스타나 수상복합단지건설사업(1조 6천억 원 규모) 2008년 우림 알마티 애플타운 건설사업(4조 5천억 원 규모)이 있다.
- 2 주요 발표 : ① 2013년 5월 '지분 참여 건설 관련 문제 사항들 해결에 대한 제안' (지역개발부 과장 대상), ② 2014년 2월 '지분참여법 개정 제안을 위한 한국의 주택보증제도'(지역개발부 장관 주관 working group 회의), ③ 2014년 5월 '지분참여 투자의 보증 메커니즘'(지역개발부 장관 주관 working group 회의)
- 3 기존 Kazakhstan Mortgage Guarantee Fund를 기반으로 한 신규 기관

KSP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

2016년 4월 신규제정된 '주택건설에 대한 지분참여법'은 같은 해 10월 법적효력이 발생될 예정이었으나, 카자흐스탄 정부는 해당 법률의 이행을 위한 지식이나 노하우가 부족했다. 따라서 2016년 6월 주택건설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국가경제부 제1차관 명의로 KSP 사업신청서를 우리 정부에 공식 제출하였다. 2016/17년 KSP 사업은 '주택건설 사업 관련 정부보증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주제로 카자흐스탄 정부의 경제여건 및 주택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한-카자흐스탄간 주택보증제도와의 정책비교를 통해 카자흐스탄에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KSP 연구진은 카자흐스탄의 효과적인 정책 형성을 위해서 카자흐스탄 현황에 기반하여 실행

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한국의 성공 사례 뿐 아니라 실패 사례도 비중 있게 다루어 카자흐스탄의 제도 도입 및 발전을 위한 반면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6/17년 KSP 사업은 '주택보증제도 및 운영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2019/20년 KSP 후속사업으로 연계되었으며 한국의 주택도시보증공사(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HUG)가 동사업을 수행하였다. 2019/20년 KSP 사업은 2016/17년 KSP 사업에 이어 카자흐스탄 주택분양보증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1) 주택분양제도 개선, (2) 주택분양제도 심사운영 강화방안, (3) 주택보증 사후관리 방안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주택건설사 신용도 평가 체제 정비와 주택보증료율의 인하

2016/17년 KSP 사업 이후, 카자흐스탄 정부는 주택건설 사업 관련 정부보증제도 법 제정 시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였으며 하위법, 시행규칙, 규범문건 등에 반영하였음을 밝혔다. 특히, 2016/17년 KSP 사업을 통해 제시된 주택건설사 신용도 평가 등에 대한 제언을 수용하여 현재 법규 개선안을 마련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주택건설사 신용평가 인프라 구축은 기존 카자흐스탄 주택보증기금이 정한 높은 보증료율의 인하로도 이어졌다. 카자흐스탄 HGF는 신용평가 및 보증심사 체제가 완벽되지 않아 보증의 위험이 크다고 여겨 주택건설사의 보증료율을 높게 책정하였으나 이는 일부 소수 대기업 외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으

로 작용하여 민간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2017년 8월 21일 카자흐스탄 투자개발부 시행령 "주택보증료율에 관한 시행령 No. 567" 개정^①을 통해 2~6%였던 보증료율을 2%로 고정하여 모든 사업개발자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위의 법이 발효된 이후 2020년까지 보급 완료될 주택가구 수 총 21,611개 중 4,956개(약 23%)가 HGF의 주택보증제도를 활용하였다. 2019/20년 KSP 사업으로 2020.10.19일자 기준 위 보증료율은 다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인 1%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향후 카자흐스탄의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우리기업의 현지 진출 가능성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보증료율 인하의 이점



① Methodology for determining the size of the guarantee contribution

민간과 현지 정부의 가교(bridge) 역할을 한 KSP 사업

본 사업의 시작 배경과 KSP 사업으로의 연결과정은 많은 시사점을 함축하고 있다. 우선 본 사업은 한국기업의 문제의식과 현지 정부 관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한국정책에 대한 지식공유에서 시작되어 지식공유사업의 '참여적 접근(Participatory Approach)'의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지의 비효율적 제도개선을 통해 협력국의 안정적 주택공급에 기여함과 동시에 보증을 인하와 보증사고에 대한 관리

체계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가능성을 확대하여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본 사업의 성과 발현에는 협력국 정부의 KSP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 및 정책 반영 의지도 중요했다. 2009년부터 지속된 KSP 사업경험이 카자흐스탄 정부에 축적되어 있었고 현지 정부 관계자들이 사업기획 단계부터 KSP 사업의 목적과 기대성과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사업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카자흐스탄 KSP 성과 발현 과정

- 01 해외진출 및 현지활동의 애로사항 인식**
 - 우리기업 동일하이빌은 2005년 카자흐스탄에 진출하여 주택 건설사업을 진행하던 중, 카자흐스탄의 비효율적인 주택 관련 법·제도에 문제점을 인식
 - 이후 카자흐스탄 공무원에게 한국의 주택보증제도를 소개
- 02 애로사항 개선 관련 KSP 사업 제안**
 - 카자흐스탄 정부는 대한주택보증공사(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도움을 받아 「주택건설에 대한 지분참여법」을 제정하고, 신규 제정된 법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KSP 사업신청서를 제출
- 03 KSP 사업 추진 및 주요 성과**
 - 카자흐스탄 정부와 2차례* KSP 사업을 추진
 - * 2016/17년 KSP 카자흐스탄 주택건설 사업 관련 정부보증제도의 도입 및 운영, 2019/20년 KSP 카자흐스탄 주택보증제도 및 운영 개선 방안
 - 카자흐스탄 정부는 KSP 정책제언을 반영하여 관련 법을 개정
- 04 협력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 우리기업의 진출 및 활동 기회 확대**
 - 현재 카자흐스탄에 건설 중인 주택의 약 23%가 주택보증제도를 활용
 - 제도 도입이 카자흐스탄의 안정적 주택 공급, 분양자 보호에 기여
 - 협력국의 비효율적인 제도가 개선되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가능성 증대



카자흐스탄 주택보증기금(HGF), HUG방문(2018.04.18)



HUG, 카자흐스탄 주택건설 부지 방문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설립

면적: 68만km² 인구: 5,283만 명
GDP: 761억 달러 1인당 GDP: 1,407달러
수도: Nay Pyi Taw



©LH

KSP 사업은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의 실현을 위한
개발후보지 제시 및 산업단지관련 법과 규제 개선에 기여하였다.

신흥시장으로서의 미얀마

2011년 미얀마 신정부의 개방정책은 미얀마의 산업화와 도시화를 급속도로 촉발시켰고 이는 제조업과 외국인 투자 증진을 위한 산업단지와 경제특별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에 대한 수요 증대로 이어졌다. 미얀마 내에는 현재 25개의 산업단지가 완공 혹은 건설 중에 있으며 경제특별구역 또한 일본, 태국 등의 국가와 협력하여 건설 중에 있다. 그리고 봉제, 식품가공 등 400여 개의 제조업체들이 미얀마 제 1의 경제중심지인 양곤을 비롯해 전국각지에 분포한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미얀마의 성공적인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는 산업단지와 경제특별구역 개발에 있어 여러 정책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미얀마의 산업단지들은 연방제를 표방하는 정부체계하에서 전국적인 차원의 거점개발이 없이 지방 정부 간 경제특별구역 유치 경쟁 양상을 보이고 산업단지 내 전기요금이 일반 개별입지보다 비싸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토지소유권이 원칙적으로 국가에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토지를 사용하는 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강호제 외, 2015).^①

한국의 동남아시아 3대 관심국가 미얀마

미얀마 신정부 출범 이후 한국 기업들과 정부가 미얀마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 결과 미얀마는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더불어 한국의 동남아 3대 관심 대상으로 부상했으며 개혁개방 이후 한국의 주요 20대 대기업을 포함한 수많은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미얀마를 방문했다(오윤아, 2013).^② 2012년에는

한국, 미얀마 양국 정상이 상대 국가를 방문했고, 2013년 6월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한국 경제부총리가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한-미얀마 경제협력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 교역, 투자, 건설·인프라, 에너지, 자원, 인적자원, 개발, 농업, 보건 의료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의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산업단지 개발구상에서 실제 건설 착수까지: KSP의 역할

한국의 산업단지는 국가경제개발계획과 국토종합계획에 맞추어 각기 특화된 목적에 따라 입법화되고 개발되면서 한국의 제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조성원가 이하로 산업용지를 공급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제조업 '전성시대'를 열었다. 한국의 제조업 분야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핵심적인 산업단지 개발과 관리정책의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의 경험을 미얀마와 공유하고자 한-미얀마 경

제협력 산업단지(Korea-Myanmar Economic Cooperative Industrial Complex, KMIC)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2014/15년 KSP 사업이 착수되었다.

2014/15년 KSP 사업은 미얀마 정책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의 실현을 위해 (1) 미얀마의 공업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거점개발 구상, (2) 실질적인 개발을 위한 개발후보지 제시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3) 산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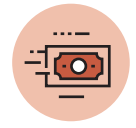
① 2014/15년 미얀마 KSP 국문보고서 중 일부 발췌(강호제 외, 2015).
② 한국의 미얀마 연구동향(오윤아, 2013).

사업 개요

| | |
|-----------|---|
| 국가명 | 미얀마(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
| 사업총괄/수행기관 | 한국국토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한아도시연연구소, 경동엔지니어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
| 현지협력기관 | 미얀마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 |
| 사업수행년도 | 2014년(착수년도 기준) |
| 정책자문 주제 |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정책자문 |
| 성과분류 | 국내 후속협력/경제협력 촉진 |



**경제협력 촉진
직접투자**
LH와 글로벌세아 미얀마
산업단지 직접투자



**국내 후속협력
금융지원**
2019년 산업단지 주변
인프라 구축을 위한
EDCF 차관공여계약 체결
(700억 원 규모)



**경제협력 촉진
공공-민간기업 연계**
한국기업 미얀마 시장
진출 기반 마련

확인성과

지 관련 법과 규제 검토를 실시하였다. KSP 사업 이후 사업수행기관이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KSP보고서를 바탕으로 시행사 입장에서의 산업단지 기본구상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2016년 1월 미얀마 내각이 LH가 제출한 사업참여의향서를 승인하면서 본격적으로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 2017년 6월 LH와 미얀마 건설부가 경제협력산업단지 합의각서(MOA)를 체결한 이후 2019년 8월 미얀마 건설부와 LH, 민간기업인 글로벌세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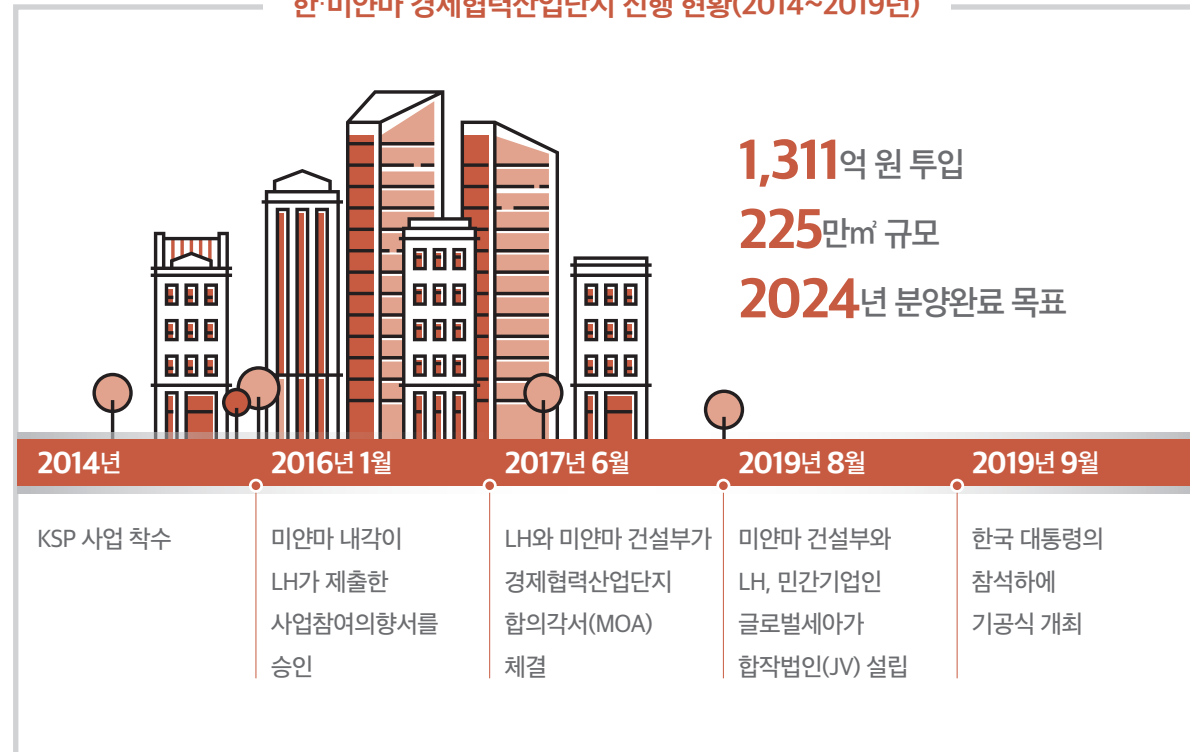
합작법인(JV)을 설립하였다. 합작법인 운영은 미얀마 건설부가 부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LH와 글로벌세아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다.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9년도 및 용수·전력시설 등 주변 인프라 구축을 위한 EDCF 차관공여계약도 체결되었다. 2019년 9월 한국 대통령의 참석하에 기공식을 개최하였으며 산업단지는 2024년에 분양 완료로 목표로 1,311억 원을 투입해 225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개발 사업 개요

- 사업명**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Korea-Myanmar Industrial Complex, KMIC)
- 위치** 미얀마 양곤주 야웅니핀(Nyaung Hnitpin), 양곤시계 북측 10km
- 면적** 2,249천㎡(약 680천 평)
- 사업기간** 2019~2024년
- 투자비** 약 1,311억원
- 시행주체** LH(40%), 미얀마 건설부(40%), 글로벌세아(20%)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 - 해외사업현황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 진행 현황(2014~2019년)



한-미얀마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합작계약 서명식(2019.08.07)

미얀마 KSP를 통한 우리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한-미얀마 경제협력단지 설립 사업은 양국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사업지의 개발수요 및 여건 분석과 법제도 검토를 시작으로 실제 산업단지 관리·운영방안까지 연계한 아세안 지역 내 최초의 전략적 산업단지 설립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KSP 사업은 사업 초기 지역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전략 수립을 통해 해외 민간협력투자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미얀마는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 거대 경제권과 아세안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향후 산업단지가 완공되면 우리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도 해외건설 수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얀

마의 해외투자 유치와 기술이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한-미얀마간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5월 개최된 한-미얀마 공동 투자설명회에는 250여 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2019년 5월 기준 산업단지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는 93곳으로 이미 공급면적을 초과하였다.^④ 미얀마는 2011년부터 KSP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와 활발하게 협력해온 국가로 2020년에 새롭게 도입한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EIPP)^⑤을 통해서도 양국 간 전력·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관계자 인터뷰

신호섭 LH 전(前)양곤사무소장

신 전(前)양곤사무소장은 2019년 미얀마 성과추적 인터뷰(2019.9.16)를 통해 KSP가 민간 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고 평가하며 “기업 입장에서 근거가 있어야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는데, 해외시장의 경우 우리 시장과 달리 정보가 부족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고 책임지기 쉽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KSP 보고서는 해외 시장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언급하였다.



④ 아시아 경제 보도자료, 2019.12.31.

⑤ 기재부는 2019년 2월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 활력 제고를 위해 KSP의 새로운 사업모델로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이하 EIPP)'을 신설하였다. EIPP는 협력국 경제발전과 우리기업의 해외 수주·진출에 도움이 되는 협력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법·제도 정비, 관련 인프라 사업 기획 및 소요자원 조달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3년 이상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벨라루스 국가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

면적: 21만km² 인구: 949만 명
 GDP: 631억 달러 1인당 GDP: 6,713달러
 수도: Minsk



KSP사업은 한국의 제조업 혁신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정책 관련 지식과 경험을 벨라루스와 공유하였다.

| 사업 개요 | |
|-----------|--|
| 국가명 | 벨라루스(Republic of Belarus) |
| 사업총괄/수행기관 | 한국개발연구원(KDI) |
| 현지협력기관 | 벨라루스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
| 사업수행년도 | 2018, 2020년(착수년도 기준) |
| 정책자문 주제 | 2018 벨라루스 국가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 2020 벨라루스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방안(Phase II): 기계제조업을 중심으로 |
| 성과분류 | 협력대상국 자체 정책 반영 |

확인성과

법률, 규정 수립

“2021~25 국가 디지털 전환계획” 수립에 KSP 정책제언 내용 활용

기관 및 조직 설립/개편

벨라루스 4차 산업혁명 추진체계 정비

민간기업 진출지원

스마트 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협력 플랫폼 구축

벨라루스 국가경제의 회복을 위한 ‘경제의 디지털 전환’

벨라루스는 독립국가연합(CIS) 국가 중 하나로 구소련의 기계, 자동차, 석유화학 분야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했던 제조업 중심의 국가로 알려져 있다. 2000년대 벨라루스의 연평균(2001~2010) 경제성장률은 7.7%에 달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15년과 2016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¹⁾하는 등 경제 침체를 겪었다. 벨라루

스가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돌파구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ICT 산업을 활용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즉 ‘경제의 디지털 전환’ 전략이다. 이를 위해 벨라루스 정부는 2010년대 중반부터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다수의 국가전략을 공표하였으며 현재 2021~2025 디지털 전환 국가전략 및 프로그램(2차) 초안을 마련하였다.

한국과 닮은 국가 벨라루스

벨라루스와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지정학적 위치, 그로 인한 역사적 굴곡, 석유가스 자원이 부족한 에너지 빈국 등 여러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지리적 거리로 인해 양국의 협력은 미진한 상태였지만, 최근 IT 분야 등을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다(방호경 외, 2019).²⁾ 2004년 한-벨라루스 정부 간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개설되었으며 2018년 9월에 개최된 제

5차 한-벨라루스 경제과학기술공동위에서는 양국의 교역·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교통·인프라, 다자 경제협력 등 경제협력 분야 전반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벨라루스는 높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경쟁력, 우수한 인적자원³⁾ 등에서 한국의 비교우위 부문과 유사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협력사업 연계·발굴 등에 대한 잠재적 가치가 높은 국가라 할 수 있다.

¹⁾ 벨라루스 GDP 성장률(%)은 (2015)-3.8% → (2016)-2.5% → (2017)2.5% → (2018)3.0%로 2017년부터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출처: World Bank).
²⁾ 2018/19년 KSP 지역연구: 라오스 및 벨라루스(방호경 외, 2019)
³⁾ 벨라루스의 전반적인 정보통신인프라 수준은 전 세계 32위(ICT Development Index, 2017)로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과학기술엔지니어링 인력 수준(전 세계 5위)과 과학력 여성 근로자 비중(전 세계 2위)은 한국보다도 순위가 높다(출처: Global Innovation Index, 2018).

벨라루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가전략 발전과정



산업별 디지털화 전략 수립과 이행

벨라루스와 한국 정부의 '국가 디지털 전략의 실행 방안 수립'을 위한 KSP 사업은 2018년 착수되었다. 한국은 2010년 중반부터 제조업 혁신을 촉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정책⁴⁾을 꾸준히 추진해온 바 있으며, KSP 사업을 통해 양국의 정책 실무자와 전문가들은 디지털 전환 정책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는 양국 경제부처 간 첫 협력 사업으로 벨라루스 국가 관영지에 KSP 사업 내용이 소개되는 등 현지의 큰 관심을 모았다. 여러 차례의 정책 세미나, 고위급 정책대화 활동을 통해 양국 관계자들은 정보화 수준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현 벨라루스의 디지털 전략을 보다 직접적인 산업별 디지털화 전략으로 선회

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양국 전문가들은 공동 연구를 통해 기계제조, 석유화학, 제약 등 주요 산업별 디지털 전환 전략을 도출하였으며, 전략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 인력 양성, 세부 프로그램 및 예산과 관련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현재 이 과제에 대한 후속사업으로 「벨라루스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방안(Phase II): 기계·제조업을 중심으로」 2020/21년 KSP가 시행되고 있다.

KSP 사업 종료 이후 벨라루스 경제부 관계자는 KSP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표하였으며, 「2021~2025 벨라루스 디지털 전환 계획」 수립에 KSP 정책제언을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벨라루스 경제부는 정책 이행을 위한 거버넌



스 개선을 위해 다양한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 및 조정 기능을 담당할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이다. 본 위원회는 경제부 장관을 조정 위원장으로 하여,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부 부처들과 주요 산업별 분과를 두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신규 민관협력 플랫폼으로 20여 개의 스마트 팩토리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본 플랫폼은 주요 정부 기관과 100여 개의 기업 참여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벨라루스 KSP 사업은 양국 간 경제협력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KSP 사업에 참여한 벨라루스 보건부 및 표준위원회대표는 연수 시 방문했던 한국 H사의 RFID⁵⁾ 구축 사례를 인상 깊게 보고, 구체적인 후속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벨라루스 정부는 유엔 산업개발기구(UNIDO) 지원으로 벨라루스 브레스트(Brest)시에 추진 중인 스마트산업단지 설립사업에 한국 K테크노파크가 참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의사를 밝힌 상태이다.

KSP 사업이 주는 3가지 시사점

벨라루스 정부가 본 사업에서 제시한 국가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법·제도 정비, 정부조직 개편, 예산구조 개선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요소를 정비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둘째, KSP 사업을 통해 도출한 벨라루스 제조

업의 스마트화 및 서비스화, 새로운 융합 비즈니스로의 산업 확장 프로그램 등의 추진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성장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벨라루스의 디지털 전환 추진 전문기관 설립, 빅데이터 분석 센터 구축, 산업별 스마트 솔루션 개발 등 관련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관계자 인터뷰⁺

H.E. Yuri Chebotar 벨라루스 전(前) 경제부 차관(2016~2020.6)/현(現) 경제부 1차관
 “벨라루스에는 국가차원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해나갈 체계가 부재하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와 같은 범부처 조직은 물론, 기업과의 협력을 위한 스마트팩토리추진단 또한 벨라루스에 도입이 필요한 사안들로 보입니다 (2018/19년 KSP사업 연수 이후 인터뷰 중).”



⁴⁾ 창조경제 산업엔진 창출전략(2014), 제조업 혁신 3.0 전략(2015), 국내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 정책(2016),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2017), 그 외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
⁵⁾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인식이라고도 하며, 반도체 칩이 내장된 태그, 라벨, 카드 등의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비접촉으로 읽어내는 인식시스템이다.

협력국의 지금, 한눈에 보기

- 2019~2020년 추적평가 결과 -

2019/2020년은 글로벌 팬데믹을 가져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국에게도 협력국에게도 쉽지 않은 한 해였다. 2019/2020년 추적평가를 통해 협력국의 상황을 확인해본 결과 기존 KSP 정책제언을 통해 추진하려고 했던 대부분의 잠정성과사항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계류 중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KSP 정책권고를 이행하고자 끊임없이 노력중인 협력국 관계자의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KDI는 2019/2020년 추적평가 결과를 통해 확인된 협력국의 의지 및 이에 기반한 성과 일부를 선별하여 본 페이지에 수록하고자 하였다.

추적평가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운영지침 제32조에 따라 수행되는 사후 모니터링 활동으로 사업종료 후 2년 이내 협력대상국 관계자와의 면담, 문헌조사 등을 통해 개별사업 내 자문과제별로 단기성과를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정책제언의 유용성과 반영도를 확인하여 후속사업의 연계를 도모하며 사업성과를 제고하고, 이를 기획 단계에 환류하여 지속가능한 형태의 사업 개선·집행에 기여하고 있다.



몽골 2018/19년

KSP 사업을 통해 KDI와 유사한 싱크탱크 설립 준비중

몽골은 경제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 단기 정책의 조화를 통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체계를 지닌 정책 수립체계가 필요하였다. 이에 2018/19년 KSP 사업을 통해 정부정책기조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정책수립을 하고자 하였다. 해당 사업 종료 시 몽골은 KSP 사업의 정책권고를 반영하여 몽골 경제개발계획 수립 시 정부부처 간 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고 KDI와 유사한 싱크탱크(Think Tank Institution)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후 진행된 2019/20년 추적평가 결과, 몽골은 2020년 5월 『개발 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법안(Bill on Development Policy, Planning and Administration)』을 개정하여 국가개발원 산하 싱크탱크 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예산확보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향후 몽골 내 싱크탱크의 설립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 2017/18년

후속 연수를 통해 베트남 기술규정개정지원과 우리 현지진출기업 지원 발판 마련

베트남은 2007년 WTO 가입 이래 12개의 FTA를 발효하였으며 한국과는 2014년에 FTA를 타결하였다. 그러나, FTA 체결 확대에도 베트남의 비관세조치는 과거보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5년 비관세 조치는 527건이었으나 2018년에는 764건으로 45% 증가하였으며 유형별로는 무역기술장벽(Trade Barrier to Trade, 'TBT')의 비중이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KOTRA, 2019). 이러한 배경하에 17/18년 TBT 해소를 위한 표준분야 KSP 사업을 진행하였다. 19/20년 추적평가를 통해 베트남 표준기술원(STAMEQ)이 KSP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전기전자제품 안전성 보장을 위한 국가기술인증규정을 개정중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KDI는 STAMEQ의 기술인증규정 개정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베트남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GKEDC)와 협업하여 후속사업연수를 기획하였으며, 이는 2021년도 개최 예정 중에 있다.



이집트 2017/18년

KSP 사업, 이집트 전자결제시장에서 한국 민간연계 가능성 제시

2017/18년 이집트 KSP 사업은 전자세정인프라 구축을 통한 징수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2018.1월 KSP 초청연수에서는 이집트 국세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국세통합시스템과 이 개발에 LG CNS 등 여러 업체가 참여한 것을 소개하였다. 이후, 이집트 재무부는 국세통합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e-invoice)제도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LG CNS와 논의하였다. L사는 이후 이집트 현지에 방문하여 이집트 재무부장관 주재하에 현금영수증, 국세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인프라 구축에 대해 발표하였다. 현지 측 확인결과, L사의 발표가 실제 현지의 인프라 구축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이집트 정부는 전자세금납부관련 법안(2019년 제18호)을 비준하고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한 현금없는 사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해당 분야 한국 금융 서비스 기업 및 정부부처 진출 기회 가능성은 향후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에콰도르 2017/18년

표준분야 KSP 사업, 2020년도 KOICA 사업으로 후속연계

2017/18년 에콰도르 사업은 2017-21년 에콰도르 국가발전계획 및 2017년 에콰도르 국가품질계획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본 사업의 연구진은 사업 초기부터 KSP 정책제언을 이행하기 위해 에콰도르 내 측정 인프라 및 설비 구축을 위한 KSP와 KOICA의 후속사업 연계가 필요함을 인지하였다. 이에 현지 출장 시 KOICA 에콰도르 키토사무소를 방문하여 KSP와의 후속사업 연계방안 검토를 적극적으로 제안하였고 이러한 노력이 2020년도 KOICA 후속사업(2020~24년/410만 불(기자재지원 203만 불/한화 약 23억 원 포함))으로의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이는 KSP 사업을 통한 정책자문과 KOICA의 무상원조를 통한 기자재지원을 결합하여 한국 ODA 사업의 효과성을 높인 대표적 성과사례라 할 수 있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